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社會地理學 : 文化와 消費의 社會地理學을 指向하며

李 相 一*

목 차

- | | |
|-----------------------------------|----------------------------|
| I. 序論 : 問題를 일으키는 社會地理學 | III. 消費의 文化政治와 부르디외의 社會地理學 |
| II. 부르디외의 文化階級論 | 1. 포스트모더니티와 ‘文化的 轉回’ |
| 1. 階級理論 對 階層理論 | 2. 日常生活의 美學化와 新中間階級 |
| 2. 社會的 空間(social space)과 場(field) | 3. 부르디외의 社會地理學 |
| 1) 階級과 社會的 空間 | 1) 社會와 空間의 辨證法 |
| 2) 構造로서의 場 | 2) 아비투스과 空間的 實踐 |
| 3. 아비투스(habitus)와 生活樣式 | : 生活樣式的 空間化 |
| 1) 趣向과 아비투스 | IV. 結論 : 文化와 消費의 社會地理學을 |
| 2) 生活樣式과 象徵鬭爭 | 指向하며 |

I. 序論 : 問題를 일으키는 社會地理學

‘사회지리학’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지리학자 Reclus에 의해 1884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 명칭상으로는 100여년의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 서울大學校 地理教育科 助教

지만 사회지리학이 지리학의 한 분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불과 30년 남짓한 것이다. 사회지리학은 지리학의 하위분과 중 가장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학문적 정체성에서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분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즉 사회지리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리학은 80년대 이후, 특히 영국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은 주로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의 진영에 있는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시도, 즉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공백이었던 공간을 통해 사회이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간사회이론의 구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주로 맑스 정치경제학을 재구성하는데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한 학자들이 주로 경제지리적 주제들에 집중했다는 사실은 사회지리학의 입장에서 몹시 불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지리학의 발전을 논하는데 있어 영미계열의 실증주의적이고 계량적인 사회지리학의 측면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사회지리학은 Phal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공간적 형상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인구집단이 이루어내는 패턴과 프로세스의 연구”이거나²⁾ Jones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집단이 그들의 공간관에 의해 생성해 내는 패턴과 그러한 패턴의 생성과 변화에 관여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해”로³⁾ 정의 된다. 여기에서 중시되는 개념은 바로 패턴과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지리학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 혹은 집단이 비공간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생성하게 되는 공간적 패턴의 확인이다. 이러한 공간적 패턴이 확인되면 사회지리학자들은 그러한 패턴의 생성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나 그러한 패턴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러한 형태의 설명은 정형화되어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성

-
- 1) J. Eyles, 1986, “Diffusion and convergence,” in J. Eyles, ed., *Social Geograph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otowa: Barnes & Noble Books, pp.1-2.
 - 2) R. E. Phal, 1965, “Trends in social geography,” in R. J. Chorley and P. Haggett, eds., *Frontiers in Geographical Teaching*, London: Methuen, p.81.
 - 3) E. Jones, 1975, “Introduction,” in E. Jones, ed., *Readings in Social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7.

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분석이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하던 미국의 도시내부를 연구하는데는 상당한 유관적합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패턴-프로세스 테제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전해졌으며, 많은 유럽의 사회지리학자들이 이것을 수용했다.

그러나 Ley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방식의 사회지리학은 ‘인식론적 공백(epistemological vacuum)’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의 표상에 불과한 부수현상에 집착한다는 것이다.⁴⁾ 또한 프랑스에서도 1960년대 말 이후 요인생태학에 몰두했던 사회지리학자들이 그 이후 실망감에 빠져들었다는 Claval의 관찰에서도 실증주의 사회지리학에 대한 신뢰의 하락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 요약하면 실증주의적 사회지리학은 보다 미시적으로(인간주의적으로), 보다 거시적으로(구조주의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할 묘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 이것은 Ley가 ‘두 종류의 대안(two candidates)’이라고 부른⁶⁾, 현상학이 주도한 인간주의와 맑시즘이 주도한 구조주의였다. 비록 이러한 반실증주의의 두가지 노선이 각각 충분한 자기증식을 하면서 사회지리학의 재구성에 가담했지만 그 이후 이 두개의 야심만만한 기획들은 또 다른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회지리학의 학문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재의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의심, 혹은 의심에의 확신은 단순히 사회지리학을 궁지로 몰아가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리학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을 재창조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지리학이란 무엇인가? 본 논자는 기본적으로 Jackson과 Smith의 정의에 동의한다. 즉 사회지리학은 “사회구조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규정되고 유지되는지를 탐색하고, 사회적 생활이

4) D. Ley, 1978, "Social geography and social action," in D. Ley and M. Samuels, eds., *Humanistic Geography: Problems and Prospects*, Chicago: Maarou/Croom Helm, pp.41-42.

5) P. Claval, 1986, "Social geography in France," in Eyles, ed., *op. cit.*, p.16.

6) Ley, *op. cit.*, p.43.

사회적 관계의 공간적 구조에 의해 어떻게 지리적으로 구축되는지를 설명하려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다.⁷⁾ 이러한 사회지리학에 대한 개념규정이 주장하는 바는 사회지리학은 지리학의 분과 중 가장 사회와 인간에 밀접한 학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지리학이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간 구조의 접점이라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미묘한 문제의 중심에 위치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지리학은 우선적으로 ‘인간의 분류법’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인간의 분류법에 대해 통상적으로 계급이나 계층이라는 단어가 사회과학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은 이러한 용어를 거침없이 수용하거나 그러한 논의에 가담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계급, 계층 중에서는 계층을, 아니면 그 둘도 아니면서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는 집단(group)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해 왔다. 본 논자는 이러한 회피는 옳바르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지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간을 분류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지리학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기존의 사회지리학은 인간의 행위를 행동된 행위, 즉 관찰가능한 행위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자발적인 것으로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는 많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며, 행위자는 그러한 규정을 알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다. 보다 복잡한 행위이론은 사회지리학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지리학의 발달사를 개관하는 Claval의 글 말미에서 우리는 이미 널리 알려진 Giddens와 Foucault의 이름과 함께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라고 하는 생경한 한 프랑스 사회학자의 이름을 보게 된다.⁸⁾ 그의 사상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리학의 한 분과인 사회지리학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7) P. Jackson and S. Smith, 1984, *Exploring Social Geography*, London: Allen & Unwin, p.vii.

8) Claval, *op. cit.*, p.21.

Lash는 “90년대 사회학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사회학이며 이 문화사회학에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자”로 부르디외를 꼽고 있다.⁹⁾ 그러나 부르디외의 사상은 ‘문화계급론’이라는 표제하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왜냐하면 부르디외의 사상의 핵심에는 맑스적 계급론에 대한 문화적 재해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자는 부르디외의 문화계급론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사회적 공간, 장, 아비투스, 상징투쟁과 같은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부르디외가 사회지리학에서 가지는 함의를 포스트모더니티 테제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사회지리학의 주제적 지향점으로서 문화와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II. 부르디외의 文化階級論

Descamps은, “역사적으로 철학은 기원전 5세기에는 회랍적, 17세기에는 프랑스적, 18세기에는 영국적, 19세기에는 독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철학이 프랑스적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치겠지만 술한 갈등과 싸움들에도 불구하고 국제 철학의 장에 있어서 프랑스 사상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⁰⁾ 이 말은 사실 최근 지성경관(intellectual landscape)에서 프랑스 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너무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구조주의에서 후기구조주의,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중요한 論客들은 대부분 프랑스 학자들이다. 이러한 거대한 지적 담론의 프랑스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 부르디외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구조주의적이지도 후기구조주의적이지도 않으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사고는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루고

9) S. Lash, 1990, *Sociology of 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김재필 옮김, 1993,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학」, 한신문화사, p.289.

10) C. Descamps, 1986, *Les idées philosophiques contemporaines en France*, Paris: Bordas; 김화영 옮김, 1991, 「오늘의 프랑스 철학사상(1960-1985)」, 책세상, pp.25-26.

있는 삼각형의 중점에 위치한다. 즉 그는 인식론적 허무주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Derrida류의 후기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Habermas의 모더니즘적 기획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을 떼지 않는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부르디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불완전하고 때로는 왜곡된 형태의 부르디외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하튼 부르디외의 문화계급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급이론의 쟁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급이론 대 계층이론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 階級理論 對 階層理論

계급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대조되는 것은 Marx와 Weber의 계급이론이다.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한 계급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는 Marx의 계급론은, 베버주의자에 의해 계급 못지 않게 결정적인, 어쩌면 그 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 지위계층과 생활양식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베버주의적 계급관에 대해 맑시스트들은 베버주의가 생산관계보다는 오히려 시장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다. 즉 생산은 분배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계급구조이론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징을 논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¹²⁾ Marx가 명확히 자신의 계급론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¹³⁾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른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의 토대위에 서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인종,

11) 이와 관련해 Lash는 부르디외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쟁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 속에 분명히 포스트모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ash, *op. cit.*, p.290.

12) N. Abercrombie and J. Urry, 1983, *Capital, Labour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김진영·김원동 옮김, 1986, 「현대자본주의와 중간계급: 자본·노동과 계급의 문제」, 한울, pp.16-20.

13)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Giddens, A.,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Hutchinson; 장정수 옮김, 1982, 「선진 사회의 계층구조」, 종로서적, pp.21-23.

성, 직위 등에 의한 분류는 계급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은 생산수단과 아무런 논리적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Weber의 계급개념은 개인이 시장과 맺는 특정한 방식, 즉 시장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생활기회의 정도가 중요한 계급상황의 징표가 된다. 흔히 Marx와 Weber의 대조는 계급이론과 계층이론의 대조로 이해되고 있다. 어쩌면 ‘계급’이라는 용어와 ‘계층’이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가 이미 사회적 층화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르디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¹⁴⁾

언어는 ‘중립적인’ 것일 수도 없고 ‘명백한’ 것일 수도 없다. 계급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계급들 사이의 투쟁의 목표이다.

하버트 부르디외의 논의도 이러한 계급론이나 계층론이나의 이분법적 구조의 스펙트럼의 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음은 분명하다.¹⁵⁾ 그러나 부르디외의 계급론이 기본적으로 Marx 계급론에 대한 재구성이라고 봤을 때, 보다 중요한 것은 계급 형성과 계급 의식 혹은 구조와 행위주체라고 하는 사회학의 중요한 이분법에 대한 그의 견해일 것이다. 그는 Marx가 ‘사물의 논리(logic of things)’와 ‘논리적 사물(things of logic)’을 혼동함으로써 이론적 계급이 자동적으로 실질적 계급이 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¹⁶⁾,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⁷⁾

맑스주의 전통에는, 현실에서 계급을 찾으려는 객관주의적 경향과, 계급이란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라는 의지론적이고 자생론적인 이론 사이의 영원한 논쟁이

14) P. Bourdieu, 1984, *Questions de Sociologie*, Les Editions de Minuit; 문경자 옮김, 1994,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 솔, p.51.

15) 계급이론과 계층이론의 차이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한상진, 1984,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 그 차이점에 관하여,” 한상진 편,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문학과 지성사, pp.159-162.

16) P. Bourdieu, 1987, “What makes a social clas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existence of groups,”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Vol.22, p.7.

17) Bourdieu, 1984, *op. cit.*, p.103.

있다. 한편에서는 계급의 조건을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 의식을 말할 것이다.

부르디외의 저작 곳곳에서 보이는 구조와 행위주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Thrift로 하여금 그가 말하는 구조화이론학과(structurationist school)에 부르디외를 포함시키게 한다.¹⁸⁾

그는 이러한 이분법의 철폐 뿐만 아니라 이론적/경험적이라고 하는 또다른 형태의 전통적인 이분법도 거부하고자 했다. 그의 저작들 속에서 보이는 다소 경험론적이고 분석가적인 기질은 여타의 프랑스 사상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생소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의 사상적 기반 자체에 대한 파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사실을 연결하고자 한 것이 그의 논의의 중요한 전제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⁹⁾

사람들은 사회계급에 대해 순수하지만(그리고 엄격하지만) 어떤 경험적 자료(생산관계에서의 위치 등)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론, 사회 구조나 그 변형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효력도 지니지 않은 순수한 이론과, 어떤 이론에도 의지하지 않지만 계급에서의 구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를 제공하는 INSEE 작업 같은 경험적 작업의 양자택일 앞에 놓여 있다. 나로서는 사회계급이론들과 사회계층이론 사이의 신학적 대립 ... 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더 복잡하면서도 더 경험적으로 형성된, 그러나 INSEE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불완전한 지표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 이론적 순수주의가 무지의 알리바이나 실질적인 기권의 알리바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18) N. J. Thrift,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1, No.1, p.28. Thrift에 의하면,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려는 시도 중 성공적인 학자로서 Bhaskar, Giddens, Bourdieu, Layder를 들고 그들을 이 학파의 구성원으로 기술하고 있다.

19) Bourdieu, 1984, *op. cit.*, p.70.

즉 부르디외에게 있어 이론적/경험적이라는 이분법의 극복은 계급이론/계층이론의 이분법의 극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진행된 그의 문화계급론 혹은 맑스계급론의 재구성은 구조에서 장으로, 계급에서 사회적 공간으로, 계급의식에서 아비투스로의 개념적 재정의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 社會的 空間(social space)과 場(fields)

1) 階級과 社會的 空間(social space)

부르디외에게 있어서 사회적 계급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용어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의 궁극적인 속성이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물체들간의 상호적인 작용의 형태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그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²⁰⁾

부르디외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가지게 되는 권력의 도구는 자본의 형태를 띠며 그것은 세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것은 각각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혹은 정보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다.²¹⁾ 문화적 자본이란 개인이 체화, 체득한 교양 또는 교육을 의미하고, 사회적 자본이란 상호적 인지 또는 인정의 많건 적건 제도화된 관계의 항구적인 네트워크의 점유와 결부된 현재적 또는 잠재적 자원, 말하자면 어떤 그룹에의 소속성에 기초한 자원을 뜻한다.²²⁾ 여기에 다소 차원이 다른 것이면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자본이 존재하는데, 이 세가지 ‘자본들’의 정통적으로 승인된 형식, 즉 위신, 신망, 존엄, 명예, 명성 등을 ‘상징적 자

20) Bourdieu, 1987, *op. cit.*, p.3.; 이것은 공간적 메타포를 사용함으로써 지식-권력관계의 중요한 측면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한 Foucault를 생각나게 한다. 메타포로서의 공간과 Foucault의 전략적인 공간메타포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일,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의 해체인가 재구성인가?,” 『지리교육논집』, 제30집, pp.71-75.

21) Bourdieu, 1987, *op. cit.*, p.4.

22) 황태현, 1992,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 p.242.

본'으로 규정한다.²³⁾

이러한 자본은 개개인이 상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이성은 사회적 공간이라는 위치 매트릭스의 한 지점을 각 개인 혹은 집단이 점유하게 한다. 이 때 사회적 공간은 세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각각 자본의 총량, 자본의 구성, 그리고 앞의 두가지 차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이다.²⁴⁾ 이 때 자본의 총량은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유래하며, 자본의 구성은 자본의 총량에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르디외가 자본의 종류를 나누고, 사회적 계급이라는 단어 대신 사회적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층화를 경제적인 것의 일면적인 규정력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적 토대를 강조한 맑스적 계급론에 대한 반론에 그대로 적용된다.²⁵⁾

맑스주의 계급이론의 실패,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관찰된 차이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이론이 사회세계를 오로지 경제적 장으로만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위치를 단지 경제적 생산관계 내에서의 위치에 의거해서만 규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이 이론은 사회적 장을 구조화하며 경제적 생산수단의 소유자들과 비소유자들 간의 대립으로 환원될 수 없는 대립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장들과 하위 장들 내에서 정해진 위치들, 특히 문화적 생산관계 내에서의 위치들을 무시한다. ... 실제로 사회적 공간은 다차원적 공간이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장들의 열려진 집합이다.

그에게 있어 사회적 층화는 서로서로에게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는 경제, 문화, 사회에 의해 다층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위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속적이고도 일차원적인 단일 축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중

23) 위의 책, p.242.

24) P. Bourdieu,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Les Editions de Minuit; 최종철 옮김, 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동문선, p.196.

25) P. Bourdieu (edited by J. B. Thompson and trans. by G. Raymond),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Polity Press; 정일준 옮김,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p.308-309.

류의 자본을 단일한 기준으로 환원하는 극도로 어렵고도 위험스럽기 조차한 조작 작업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한 계급 지표를 통해 얻은 추상적 층들의 연속체로 사회세계를 환원하려는 모든 사회학적 전통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자본의 총량과 자본의 구성방식을 결합하면 특정한 사회적 위치공간을 도출해 낼 수 있다.²⁷⁾ 이 공간내에서의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이동 궤적(trajecory)이 사회적 공간의 마지막 한 차원을 구성한다. 사회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계급구조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부르디외의 논리는 그의 장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백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 構造로서의 場

부르디외의 장개념은 사회적 (위치)공간의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이다. 특정한 자본을 소유한 소유자들이 그 특정한 자본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르디외는 場(field)라고 부른다. 그에 의하면 장이란 다음과 같이 개념규정된다.²⁸⁾

장이란 공시적으로 파악할 때 입장들(또는 지위들)의 구조화된 공간으로 드러

26) Bourdieu, 1979, *op. cit.*, pp.209-210.

27) *Ibid.*, pp.212-213의 <그림 5> 참조. 이 그림은 총자본량(경제적 자본+문화적 자본)을 上下축(하에서 상으로 갈수록 총자본량이 증가)에,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비중을 左右축(좌로 갈수록 문화적 자본 비중 증가, 우로 갈수록 경제적 자본 비중 증가)에 설정하여 그린 사회적 공간이다. 따라서 右上에는 총자본량은 많으나 그 자본에서 경제적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문화적 자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계급분파가 할당되며(자본가), 左上에는 자본가와 거의 동일한 자본 총량을 가지지만 문화적 자본의 비중이 경제적 자본의 비중보다 높은 고등교육교수나 예술제작자가 할당된다. 부르디외는 이 사회적 공간에서 특히 좌상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급분파(특히 교수, 예술제작자, 문화매개자)에 관심을 집중한다. 부르디외는 이 그림에 생활양식공간도 중첩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각 계급분파와 가까운 거리에 표시된 생활양식들은 그 계급분파에 의해 보다 많이 전유됨을 의미한다.

28) Bourdieu, 1984, *op. cit.*, p.127, p.221.

난다. ... 나는 게임의 공간, 동일한 목표를 두고 경쟁하는 개인들 혹은 제도들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의 영역을 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장은 정치적 장, 종교적 장, 학문적 장, 예술적 장 등으로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종류의 것들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장에는 특정한 게임의 규칙이 내재되어 있어서 각 장간에는 상당히 완고한 형태의 장벽이 존재한다. 즉 각각의 자본은 사회적 관계이며(게임의 규칙에 복종하는) 사회적 에너지로서(게임을 유지하는), 그것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장에서만 존재하고 효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급과 결부되는 각 특성의 가치와 유효성은 각 장에 고유한 법칙들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²⁹⁾ 그러므로 사회적 실체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복수의 장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 장의 게임규칙과 정치적 장의 게임규칙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장은 그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위계화된 구조의 형태를 띠며 구조상의 위치들간의 영원한 투쟁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장 간에는 '구조적인 相同性(homology)'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각 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혹은 권력의 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인층은 경제적 장에서는 피지배층에 속하지만 사회문화적 장에서는 지배층에 속한다.

이렇게 장내에서는 그 장의 속성이 드러내는 자본의 양에 의해 지배관계가 설정되지만, 계속적인 장내의 입장들간의 투쟁이 존재한다. 즉 이미 결정된 역학 관계의 상태에서 특정 자본을, 즉 하나의 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수한 권위나 권력의 토대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독점한 사람들은 보존의 전략-문화 자본 생산의 장들 속에서 정통성의 옹호를 지향하는 전략들-으로 나아가게 되고 반면에 자본을 별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전복의 전략-이단의 전략들-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³⁰⁾ 장은 장 그 자체와 거기서 작용하는 게임규칙은 문제삼지 않은채 장의 구조를 전복시키는 부분적인 혁명의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의 게임규칙 그 자체

29) Bourdieu, 1979, *op. cit.*, pp.194-195.

30) Bourdieu, 1984, *op. cit.*, p.129.

가 공격받는 법은 없다. 즉, “지배를 위해 투쟁하는 자들은 그 장에 변화를 일으켜 지속적으로 재구조화되도록 만든다. 좌파와 우파 사이의 대립, 전위와 후위 사이의 대립,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과 이단적인 것 사이의 대립, 정통과 이단 사이의 대립은 (장에 따라) 끊임없이 실제적인 내용은 달라지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다³¹⁾”는 것이다.”

장들은 구조들이며, 각 개인이나 집단은 각 장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게 됨으로써 특정한 양의 자본을 소유하게 된다. 다수의 장들은 특정한 결합방식을 통해 사회적 공간이라는 특정한 구조적 환경을 창출하고 각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이 소유한 각 장들 속에서의 자본의 양과 장들 간의 특정한 결합방식을 통해 사회적 공간의 한 지점을 점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은, 뒤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지만, ‘樣式的 可能性(stylistic possibles)’의 지점이다. 즉 장들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총체적인 사회적 공간은 구체적이면서 서로 구별되는 양식을 사회적 공간상의 개인과 집단에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집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간의 작동에 조응하는가? 즉 특정한 개인과 집단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양식적 가능성을 전유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비투스 개념을 통하여 제공된다.

3, 아비투스(habitus)와 生活樣式

1) 趣向과 아비투스

선택의 근거가 되는 취향 혹은 성향은 장에서 개인이 위치하고 행동하는데 대한 이론적 해답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사물과 활동에 대한 선호로 이해되는 취향이 자연적인 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부르디외는 실천을 구조주의적이지도 기능주의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공간에서의 위치가 갖는 의미는 그가 아비투스라고 정의한 실천의 통일원리에 의해 생성된다.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아비투

31) *Ibid.*, p.225.

드(habitude, 습관)라는 개념과 근본적으로는 구별되면서도, 아비튀드의 개념이 환기시켜주는 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말하게 해준다. 아비투스란, 이 단어가 암시하듯이 획득된 것으로서, 영구적인 성향의 형태 아래 지속적으로 신체에 구현된 것이다.³²⁾ 따라서 아비투스는 다음과 같이 개념규정된다.³³⁾

과거의 경험들을 통합함으로써 매 순간마다 지각·평가·행위의 준거(matrix)로서 기능하며,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가능케 해주는 圖式的 類推的 轉移(analogical transfers of schemes)와 획득된 결과들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생성되는 그 결과들에 대한 끊임없는 補正(corrections)을 통하여, 무수히 다양한 과업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항구적이면서도 전위가능한 성향체계(강조: 원문)

부르디외에 따르면 아비투스는 “객관적으로 분류가능한 실천들의 발생 원리인 동시에 이 실천들의 분류체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비투스는 두가지 능력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데, 분류가능한 작품과 실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실천과 생산물들을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전자의 능력은 ‘생성도식’에 의해, 후자의 능력은 ‘지각도식’과 ‘평가도식’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능력을 통하여 생활양식 공간이 구성된다.³⁴⁾ 이 때 생활양식 공간이란 모든 종류의 문화적 실천의 장들의 총체적 구조인데 예를 들면 취향의 상이성에 의해 설정되는 음악작품간의 거리나 스포츠 종목간의 거리, 혹은 극단적으로 결혼상대자들간의 거리에 의해 구조화된, 모든 문화적 대상에 대한 일종의 ‘選好 地圖’로서 문화적 실천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보다 도식적으로 묘사하면 각각의 장은 그 장의 속성에 부합하는 특정한 생활양식 공간을 제공하며 개인이나 집단은 그 각각의 생활양식 공간에서 특정한 실천을 행한다. 예를 들어 상층

32) Bourdieu, 1984, *op. cit.*, p.150.

33) P. Bourdieu,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82-83.

34) Bourdieu, 1979, *op. cit.*, p.279.

부르조아는 호텔에서서의 바캄스를 즐기고 샴페인을 주로 마시지만, 자유전문직 종사자들은 테니스를 즐기고 위스키를 마시며, 단순기능공들은 축구와 적포도주를 즐긴다. 부르디외는 각 장이 제공하고 있는 양식적 가능성 중의 하나를 전유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비투스 개념을 중요시한다.

사회적 공간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으로 분류가능한 계급의 생활조건, 즉 생활조건인 구조상의 위치는 ‘구조화하는 구조’가 되며, 아비투스는 실천과 실천의 지각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활조건에 의해) ‘구조화된 구조’이기도 하다.³⁵⁾ 또한 이 아비투스는 문화적 실천을 통하여 ‘분류되고’ ‘분류하는’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선택체계를 발생시킨다.³⁶⁾ 이로서 생활조건(구조)과 문화적 실천(행위주체)이 아비투스에 의해 중재되는 부르디외의 삼위일체(trinity)는 완성되는 것이다.³⁷⁾

사회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직하는 논리적 계급 구분원리는 그 자체가 사회계급구분이 육화된 결과이다. 즉 장이 물질화된 역사라면 아비투스는 육화(肉化)된 역사이고, 사회적 실천이란 이 두가지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즉 아비투스란 “실천의 통일원리와 생성원리, 즉 계급과 그것이 부과하는 조건화의 육화된 형태”³⁸⁾이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자의 모든 실천과 작품은 의식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지 않아도 서로 객관적 조화를 이루며, 의식적인 협정없이도 같은 계급의 성원들 사이에서는 객관적으로 협화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³⁹⁾ 즉 사회화된 신체와 사회적 장들 사이에는 하위의식적이고 신체적인 공모가 존재하는 것이다.⁴⁰⁾ 하나의 감동처럼 다가오는 기호품의 발견,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작품, 심지어 사랑의 대상까지도 몸속에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던 아비투스와 그 아비투스가 그 장에서 환산된 만큼의 그 ‘상품’이 ‘예정조화’처럼 만나는 것이다.

31) Ibid., p.225.

36) Ibid., p.286.

37) Ibid., p.280의 <그림 8> 참조.

38) Ibid., p.176.

39) Ibid., p.282.

40) Bourdieu, 1984, *op. cit.*, p.95.

그러나 이러한 다소 결정론적인 실천에 대한 사고를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의 '생성적(generative)' 속성과 '상황'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용이하게 벗어나고 있다.⁴¹⁾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아비투스가 대단히 **생성적**인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다..... 비록 실천이나 담론, 작품을 산출해내는 능력이 전혀 선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능력이 역사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은 완벽하게 그것의 생산조건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개념은, 그것이 개별적 역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무엇인가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과, 본질주의적 사유 방식과 대립되는 발생론적 사유방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아비투스는 '상황'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결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자율성의 원리이다. ... 상황은 일정한 방식으로 아비투스의 실행을 허용하는 조건이 된다. 실현의 객관적인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상황에 의해 저지되는 아비투스는, 그것이 실현될 기회를 기다리다가 객관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표출되는 폭발적인 힘의 장소일 수 있다.(필자 강조)

장이 어떤 권력(혹은 자본)의 형태들 속에 뿌리박은 입장들 사이의 역사적인 객관적 관계들 전체로 이루어진 반면, 아비투스는 지각, 평가, 행동이란 정신적, 육체적 구조의 형태로 개인의 육체속에 침윤된 역사적 관계들의 총체 형식을 띤다.⁴²⁾ 따라서 부르디외에게 있어 사회의 행위자와 세계 사이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각과 평가의 원칙으로서 아비투스와 그것을 결정짓는 세계와의 '존재론적 공모' 관계이다.⁴³⁾ 이러한 개념적 조작을 통하여 부르디외는 사회구조와 인간행위를 관련짓는 방식에서 구조주의와 인간주의가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환원주의(reductionism)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규정력과 인간의 구성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화해의 방식을 발견

41) *Ibid.*, p.150-152.

42) L. J. D. Wacquant, 1992, "Preface," in P. Bourdieu, *Réponses*, Éditions du Seuil; 문경자 옮김, 앞의 책, p.312.

43) *Ibid.*, p.316.

해낸 것처럼 보인다. 다음에서 생활양식과 상징투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2) 生活樣式과 象徵鬭爭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생활양식은 아비투스⁴⁴⁾의 체계적 산물이다. 아비투스가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생활양식을 생성하게 되는 것은 아비투스가 지니고 있는 통일성이다. 즉 각 장이 제공하는 양식적 가능성의 공간에서 행해진 문화적 실천들간에는 스타일상의 친화력이 존재하며, 이것은 각 실천이 동일한 행동도식이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집, 가구, 그림, 책, 자동차, 술, 담배, 향수, 옷 등과 같은 ‘특성’들 전체와 스포츠, 게임, 문화적 여가활동 등을 통해 탁월함을 드러내는 실천 속에서 체계성을 찾을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모든 실천의 발생원리이자 통일원리인 아비투스의 총괄적인 통일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 취향은, 즉 구분하고 구분된 특정한 대상 전체를 (물질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적성이나 능력은 동산, 옷, 언어, 또는 육체적 엑시스와 같은 각각의 상징적 하위공간의 특수한 논리 안에서 동일한 표현적 의도를 드러내는 생활양식의 생성양식, 즉 구별적 嗜好의 통일적인 체계이다. ... 이처럼 취향은 사물을 명확하고 구별적인 記號로 변화시키고, 연속적인 분배를 불연속적인 대립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의 작동인이다. 취향은 신체의 물리적 질서 안에 각인된 차이를 표상적 구별의 상징적 질서로 끌어 올린다.⁴⁵⁾

취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별이윤이며, 이러한 구별이윤은 자아에 대한 정당화, 즉 정체성의 이윤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취향이냐 말로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즉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분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분”⁴⁶⁾되기

44) Bourdieu, 1979, *op. cit.*, p.282.,

45) *Ibid.*, pp.283-285.

46) *Ibid.*, p.103.

때문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이윤은 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쟁의 게임을 통하지 않고서는 획득되지 않는데, 이러한 투쟁은 경제적 또는 문화적 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구별된 또는 구별하는 상품이나 실천의 형태로 적절한 구별기호를 획득하고 이러한 변별적 속성들의 구별원리를 보존 또는 전복하기 위한 상징적 투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⁴⁷⁾ 그리고 이러한 상징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항상 현재의 ‘탁월한’ 소유자와 ‘상승지향적인’ 도전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탁월한 소유자는 통속화에 맞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속성의 희소성을 확보하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성향을 찾아나서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만든다.⁴⁸⁾ 사회계급은 변별적 記號를 배타적으로 전유하려는 투쟁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⁴⁹⁾ 또한 이러한 상징투쟁은 어쩔 수 없이 부르디외가 강조하고 있는 신부르주아지나 신신티부르주아지와 지배계급 사이에서 가장 격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장이 작동하는 방식과 상징투쟁에 대한 Lash의 정리는 이러한 과정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⁵⁰⁾ (1) 특정의 그리고 분화된 장들은 집단적인 상징 투쟁들과 개인적 전략들의 장소들이다. (2) 그런 전략들과 투쟁들의 목적은 가치있는 문화적 재화들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3) 하나의 상징적 재화의 가치는 관련있는 소비자 공동체가 그것에 부여한 가치에 달려 있다. (4) 대부분의 장들에서 이런 가치 판단들은 생산자가 축적한 상징적 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5) 상징적 투쟁에서의 승리는 어떤 사람의 상징적 재화들이 자신의 경쟁자들의 상징적 재화들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음을 의미한다. (6) 그런 승리의 결실은 자신의 상징적 재화들을 사회적 장에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적 장들은 그 장을 변형시키려는 자와 보존하려는 자의 투쟁에 의해 결정되는 매우 유동적이고 계기적인 공간인 것이다.

47) *Ibid.*, p.405.

48) *Ibid.*, p.408.

49) *Ibid.*, p.405.

50) Lash, *op. cit.*, p.297.

III. 消費의 文化政治(Cultural Politics)와 부르디외의 社會地理學

1. 포스트모더니티와 ‘文化的 轉回(cultural turn)’

선진자본주의 사회가 특정 시점 이후로 그 토대에서부터 질적인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피력되었으며, 이러한 移行의 관점에서 현대의 시기를 후기자본주의, 소비자본주의, 탈조직적 자본주의, 유연적 축적체제, 포스트-포디즘의 시대라고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것을 주장한 학자들의 학문적·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소 상이한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 상의 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용어로서 소비사회(consumer society)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본주의 경제상의 변화를 장황하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¹⁾ (1)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의 전환, (2) 기업활동의 집중화, 중심화, 재조직화, (3) 생산의 국제화와 탈중심화, (4) 생산 조직에서의 유연성의 증대, (5) 금융 자본의 역할 증대, 조직화된 노동의 역할 약화, 직업 구조상의 변화,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간의 연대.

이러한 경제상의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Jameson에 따르면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인 것을 잉태하게 되고⁵²⁾, 결국 포스트모더니티라고 하는 총체

51) E. Shoenberger, 1988, "From Fordism to flexible accumulation: technology, competitiv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location,"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6., No.3, pp.245-262; F. Moulaert and E. A. Swyngedow, 1989, "A regulation approach to the geography of flexible production system,"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7, No.3, pp.327-345.

52) F. Jameson, 1984,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Vol.146; 강내희 옮김, 1989, "포스트모더니즘 -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터, pp.139-202; 제임슨은 이 논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특징으로 미학적 대중주의, 문화 생산물의 깊이 없음, 역사성의 빈곤, 의미의 해체, 행복감의 만연, 비판적 거리의 소멸, 반영 혹은 재현 이데올로기의 약화 등을 꼽고 있다.

적인 사회성을 구성하게 한다. 이러한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 양상을 후기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이데올로기적 반응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결정론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Jameson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문화영역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모더니즘이 포디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후기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완전히 다르다. 즉 포스트모더니티는 경제에 대한 문화의 존재론적 위상 강화를 중요한 특성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며 이에 수반된 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사회과학계의 광범위한 '문화적 전회(cultural turn)'를 이끈다. Conn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⁵³⁾

삶의 모든 영역으로 문화가 폭발적으로 침투해 감에 따라 좌파 문화정치학에게는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처럼 문화형태들을 결정하고 생산해내는 좀더 '근본적인' 사회경제 기반들과 문화형태를 관련시키는 일보다는 하나의 유물론의 실행 형식으로 간주되는 문화의 전영역 자체를 탐구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주어졌다. 광범위한 견지에서 기호들, 재현들, 이미지들, 심지어는 '생활 방식들'로 이루어지는 문화생산이 ... 더 오래된 생산양식을 능가하기 시작한 이러한 전세계적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인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적 전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양상에 대한 논쟁과 맞물리면서 '소비'라는 주제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사회학의 경우 '소비사회'라는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존의 사회학 틀 속에서 소화해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⁵⁴⁾ 또한 이러한 문화적 과정과 소비에 대한 강조는 생산에 기초한 계급론의 설명력을 점점 더 불신하게 되고 소비 부문의 분열을 사회적 층화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게 한다.⁵⁵⁾

53) S. Conner, 1989, *Postmodern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y of the contemporary*, Oxford: Blackwell; 김성곤·정정호 옮김, 1993, 「포스트모던 문화: 현대이론서설」, 한신문화사, p.263.

54) Z. Bauman, 1988, "Is there a postmodern sociology,"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No.2-3, pp.217-238.

문화는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 모두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는 일종의 '공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형태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던 예술의 특색은 Featherstone에 의하면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된다.⁵⁶⁾ (1) 예술과 일상생활 간의 경계 소멸, (2) 고급문화와 대중/민중 문화간의 위계적 구분의 붕괴, (3) 양식의 절충주의와 악호의 혼합, (4) 혼성모방, 아이러니, 유희성과 문화적 '얕음'의 찬양, (5) 예술 생산자의 독창성/천재성의 위상 하락과 예술은 오로지 반복될 수 있을 뿐이라는 가정.

이러한 특징은 문학과 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시각적·비시각적인 모든 문화양상에서 드러나며, 특히 건축, 건조환경, 더 나아가 장소자체의 성격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를 의미있게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청중은 보편적인 대중인가 아니면 특정한 집단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위에서 본 Jameson과 같은 형태의 보편주장을 반박하는 Featherstone의 다음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⁵⁷⁾

포스트모더니즘을 특정한 문화 논리, 자본 논리 혹은 다른 어떤 '논리'의 산물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특정한 집단의 실천과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부르디외의 다음 주장에서 보듯이 문화자본의 생산의 장과 소비의 장간에는 무의식적인 상응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55) R. Crompton,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An Introduction to Current Debates*, Cambridge: Polity Press; 정태환·한상근 옮김, 1995, 「현대의 계급론」, 한울아카데미, pp.208-217; A. Ward, 1990, "Production, consumption and social change: reservations regarding Peter Saunder's sociology of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14, pp.228-248.

56) M. Featherstone, 1988, "In pursuit of the postmodern: an introduc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No.2-3, p.203.

57) M. Featherstone, 1992, "Postmodernism and aestheticization of everyday life," in S. Lash and J. Friedman, eds., *Modernity and Identity*, Oxford: Blackwell, p.265.

58) 생산의 장은 이미 존재하는 취향에, 아주 명확하게 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상품을 소비하려는 다소간 강력한 소비취향에 의존하지 않는 한 분명히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데, 바로 이 장이 취향으로 하여금 어떤 순간이건 양식적 가능성의 체계 안에서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양식은 모든 집단에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어 소비되기를 기다리는 자본이 아니라 특정한 취향의 생산자가 특정한 취향의 소비자를 위해 혹은 특정한 아비투스⁵⁸⁾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모던 문화의 청중, 즉 포스트모던 문화와 공모관계에 있는 소비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다음장에서 다루어 보겠다.

2. ‘日常生活의 美學化(aestheticization of everyday life)’와 新中間階級

포스트모더니즘이 하나의 문화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티가 일상생활의 문화적 경험에서 중요한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의 미학화(aestheticization of everyday life)’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일상적 경험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다. Featherstone에 따르면, 여러 문헌에서 쓰이고 있는 ‘기호와 상품의 融解(liquefaction)’, ‘실체와 이미지간의 경계 소멸’, ‘부유하는 기표들(floating signifiers)’, ‘초실체(hyperreality)’, ‘깊이 없는 문화(depthless culture)’, ‘감각의 과부하(sensory overload)’ 등과 같은 용어들은 바로 공공적 매체를 통한 이미지 생산의 격화(intensification)에 의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경험상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들이다.⁵⁹⁾ 이러한 경험은 포스트모던적으로 구성된 공간(포스트모던적 건축설계에 의해 탄생한 단일한 건물일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지역규모에서 가시적으로 경험되는 절충적 양식의 특성을 보유한 건조환경의 한 지구일 수도 있다.)을 통하여 강화된다.

생활의 양식화(stylization)를 추구하는 특정한 집단에게 있어 포스트모던적 문화

58) Bourdieu, 1979, *op. cit.*, pp.371-372.

59) Featherstone, 1992, *op. cit.*, p.267.

와 포스트모던적 공간은 마침내 일상생활과 예술, 그리고 실체와 이미지간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을 미학의 대상이 되게 해준다. 따라서 미학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집단은 물질적 대상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생산된 기호적 차이를 소비한다.

사람들은 결코 사물 자체를 (그 사용가치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 이상적인 준거로서 받아들여진 자기집단에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보다 높은 지위의 집단을 준거로 삼아 자신의 집단과는 구분하기 위해서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항상 조작한다.⁶⁰⁾

이들에게 있어 소비는 쾌락과 정체성, 의미의 생산 등에 관심을 가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과정이다.⁶¹⁾ 그러므로 소비의 장은 개인 혹은 집단 정체성이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즉 기호-가치(sign-value)의 교환을 통해 전유되는 문화정치의 사회적 공간이다. 한편 포스트모던적 아비투스(gustus)를 가지는 집단은 탈구조화되고 탈중심화된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동일자(the same)'와 '타자(the other)'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들이 엄격하지 않고 탄력적이며 침투성이 있는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 집단들은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한 관용의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는 아비투스를 보유하고 있다.⁶²⁾ 이러한 아비투스의 보유자,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청중은 '신중단계급'이라는 용어로 집약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Abercrombie & Urry에 있어서는 '서비스계급(service class)⁶³⁾, Savage 등에게 있어서는 중단계급 중 한 분파⁶⁴⁾, 그리고 부

60) J. Baudrillard, 1970, *La Société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Éditions Denoël; 이상률 옮김,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의 구조」, p.72.

61) J. Storey,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Simon & Schuster; 박 모 옮김, 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p.285.

62) S. Lash and J. Urry, 1987, *The End of Organized Capitalism*,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296-300.

63) Abercrombie & Urry, *op. cit.*

64) M. Savage, J. Barlow, P. Dickens, and T. Fielding, 1992, *Property, Bureaucracy and Culture: Middle-Class Formation in Contemporary Britain*, London: Routledge,

르디외에게는 ‘신부르주아지’나 ‘신쁘띠부르주아지’에 해당하는 집단이다.⁶⁵⁾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중관계급은 취향이라는 ‘중매자’⁶⁶⁾를 통해 ‘운명애의 형식’⁶⁷⁾으로 만난다. Lash는 이러한 운명적 만남을 다음의 일곱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⁶⁸⁾

(1) 포스트모더니스트 문화의 청중들인 중관계급들에 새롭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후기산업사회의 중관계급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산업 자본주의의 신중관계급들은 산업 상품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상징들을 생산해 냈다. 후기산업사회의 중관계급들은 다른 상징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상징들을 생산해 낸다. (2)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런 사회 계급들이 소비하는 평범한 지성의 middle-brow 문화(보통예술 art moyen)인 동시에, 정통 모더니즘에 대한 아방가르드적인 도전이다. (3) 이런 신계급들은 현대의, 후기산업의, 그리고 후기포드주의의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자본의 축적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본 축적의 필요조건으로, 창조되어진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새로운 경제 조절 양식을 직접 연결하는 요인으로 직업 윤리의 변천이나 ‘전문화된 소비’의 성장, ‘소비 자본주의’로의 이행 등이 있다. (4) 이것들은 또한 공간적인 면에서 우리들의 대도시 중심가를 재구조화하고, 후기산업사회의 중간 계급들 가운데서 도시 중심에 거주하는 대규모 집단의 ‘여피(yuppies)’를 창조해 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중관계급들이 도시 중심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문화적인 것이고, 그들의 아비투스들과 포스트모던 문화 사이의 선택적 친화력과 관계가 있다. (5) 포스트모던 문화는 전위 예술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아방가르드라고

Chp.6, pp.99-131; 이들은 부르디외가 말한 ‘신쁘띠부르주아지’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생활양식에 단일한 조직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65) 부르디외는 신부르주아지에 자유전문직, 공공행정가, 과학자, 사기업 관리직, 그리고 물질적 생산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직종, 즉 재정분석가, 경제전문가, 관리자문가, 인사관리전문가, 디자이너, 판매전문가 등을 포함시키고 있고, 신쁘띠부르주아지에는 판매계 일반 관리직, 일반기술자, 의료보건서비스직, 그리고 문화생산과 조직에 직접 가담하는 직종, 즉 저자, 편집자, 라디오와 TV의 PD, 잡지간행인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66) Broudieu, 1979, op.cit., p.393.

67) *Ibid.*, p.395.

68) Lash, *op. cit.*, pp.307-311.

주장하는 것 같다. (6) 포스트모더니스트 문화의 수용은 새로운 유형의 아비투스 뿐만 아니라 분류 체계 도식이 느슨해지고 경계들이 불분명해 질 수 있는 ‘탈중심화된’ 특징을 나타내는 아비투스와 결합하고 있다. (7)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이 지향하는 구조주의에 대해 새로운 인간주의를 옹호한다.

부르디외는 특정한 취향이 특정한 대상을 ‘자연스럽게’ 문화적 자본으로 전유할 수 있는 이유를 ‘投資感覺’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문화 능력의 획득은 부지불식중에 건전한 문화적 자기투자에 대한 ‘감각’을 획득하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⁶⁹⁾ 이러한 투자 감각에서 중간계급의 상승지향적 성향은 다른 계급분파에 비해 상징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⁷⁰⁾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자본에의 투자는 지배적인 문화양식을 전복하기 위한 전략이며 상징 투쟁의 자산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사회적 공간)상에서의 위치들은 동시에 전략적 위치이자 각 계급과 분파들의 투쟁의 장에서 방어해야 할 요새, 탈취해야 할 진지이기도 하다.⁷¹⁾

그러므로 모든 문화적 실천과 그것을 통한 문화적 전유는 사회적 공간 상에서의 역학구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결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는 정치가 되는 것이다. Jackson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라는 개념은, 미학, 취향, 양식과 관련된 ‘문화적’ 문제가 권력, 불평등, 억압의 ‘정치적’ 문제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준다.⁷²⁾

3. 부르디외의 社會地理學

부르디외의 연구가 지리학과 연결되는 단초는 그의 초기 저작에 속하는 알제리

69) Bourdieu, 1981, *op. cit.*, p.151.

70) Bourdieu, 1979, *op. cit.*, p.410.

71) *Ibid.*, p.396.

72) P. Jackson, 1993, "Towards a cultural politics of consumption," in J. Bird, *et al.*, 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London: Routledge, p.222.

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이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부르디외의 이 방법론을 지역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개념을 규정하는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부르디외의 저작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⁷³⁾ 부르디외의 연구 중 지리학자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Harvey도 중요하게 인용한 것처럼 카바일족(Kabyle)의 시·공간적 활동 조직에 대한 연구와 그에 의해 제시된 매력적인 그림일 것이다.⁷⁴⁾ 그러나 부르디외 저작에 대한, 특히 문화계급론을 중심으로 한 논의 전반에 대한 지리학자에 의한 비평적 글은 Werlen이 거의 유일하다. 그에 의하면 부르디외의 한계는 세가지로 나누어진다.⁷⁵⁾ 첫째,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하여 개인을 사회적 공간의 특정 지점에 위치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물리적인 공간적 setting에 위치시키는 개념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 인간의 행위는 사회경제적 행위의 준거들에 의해 국지화될(localized)뿐만 아니라 공간적 준거들에 의해서도 국지화된다. 둘째, 경제적 장을 장들의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경제결정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르디외의 ‘공간’이라는 개념의 이해와 그것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무지이다. 그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용기(container)’로서의 절대적 공간개념을 상정하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적 메타포, 즉 사회적 공간, 장, 위치와 같은 개념들은 그 시작에서부터 물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73) 부르디외는 지역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종족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투쟁들은 분류적 투쟁(classifying struggle)의 한 형태로서, 사회세계의 다양한 분할에 대한 정당한 정의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만들고, 알고 인정하도록 하며 부과하는, 그리하여 이를 통해 집단들을 형성하고 해체시키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투쟁이다. ... 지역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분할의 원칙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Bourdieu, 1991, *op. cit.*, pp.271-272.

74) Bourdieu, 1977, *op. cit.*, p.134의 fig.3.; D. Harvey,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 구동회·박영민 옮김,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p.266.

75) B. Werlen, 1993, *Society, Action and Space: An Alternative Human Geography*, London: Routledge, pp.154-158; 부르디외에 대한 지리학적 비판으로 다음의 책도 참조할 수 있다. R. Shields, 1991, *Places on the Margin: Alternative Geographies of Modernity*, London: Routledge, pp.32-38.

Werlen의 비판에서도 드러났듯이 부르디외의 사회지리학을 논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회적 공간'⁷⁶⁾ 개념을 '공간화(spatialization)'하는 문제이다. 즉 그에게는 Giddens가 다소나마 보여주고 있는 사회-공간 관계의 어떠한 상상력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자는 부르디외가 제시하고 있는 몇가지 개념들은 사회지리학을 의미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다루기 전에 부르디외의 사회지리학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개괄 하고자 한다.

1) 社會와 空間의 辨證法

사회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구분의 역사는 '사회의 공간에 대한 無視'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지리학에게 있어 패배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그 역사는 '사회의 공간에 대한 無知'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은 구분되어 다루어 질 수 없는 것이며 양측이 교차하는 미묘한 부분을 포착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치명적인 인식론적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리학자의 노력은 많은 반향을 얻었으며⁷⁷⁾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지리학자들의 노력은 한마디로 '공간사회이론'에의 주장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리학자들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바로 사회와 공간을 연결시키는 개념적인 장치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주로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의 진영에 있는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이러한 개념적

76)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엽 뒤르켐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50년대 프랑스에서 지리학자 M. Sorre와 사회학자 Chombart de Lauwe에 의해 발달된 개념이다. A. Buttner, 1969, "Social space i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Vol.59, pp.417-426.

77) 이러한 반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나는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중의 한사람인 Giddens의 구조화이론이 공간을 중시했다는 점, (2) Harvey가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계의 논객 중의 한사람이 되었다는 점, (3) Sayer가 Lancaster 사회학과 교수 되었다는 점.

노력은 많은 논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과정은 공간 속(in)에서 작동함과 동시에 공간을 통하여(through) 작동한다.'라는 기본적 공리에서 합의를 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에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공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과정과 공간적 형태 간에는 (다소 필연적인 의미에서) 구조적인 상동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다.⁷⁸⁾ 실증주의 도시사회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였던 '사회지역(social area) 분석'과 지리학에서의 거주지 분화 연구는 이것의 전형적인 예이다. 사회경제적 속성과 생애주기적 속성에 의해 구성되는 비공간적인 좌표면 상에 할당된 인구는 도시공간상에 그대로 투영될 것이 가정되어 있다. 사실 부르디외의 사회적 공간 개념은 이 사회지역 개념과 매우 유사한 메타포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르디외는 사회적 과정(계급 형성)과 공간적 형태(거주지 분화)간의 구조적 상동성에 대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실질적으로 부르디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지리학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 간의 관계 ... 이러한 두 공간은 결코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그러나 ... 보통 지리적 공간의 효과와 결합된 많은 차이들은 사회적 공간에서의 거리의 효과, 즉 지리적 공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의 효과이다.⁷⁹⁾

상이한 분파들간의 생활양식의 차이(특히 문화와 관련된 차이)를 좀 더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각 분파가 사회적으로 위계화된 지리적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위계화된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한 계급 또는 계급분파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은 사회적 공간에서 그 계급이나 분파의

78)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공리는 실증주의 지리학(특히 도시사회지리학)과 (상당히 많은)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의 공통적인 오류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A. Sayer, 1985, "Industry and space: a sympathetic critique of radical research,"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3, No.1, pp.4-6; 이상일, 1990, "실재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제24집, p.3 참조.

79) Bourdieu, 1991, *op. cit.* p.291의 각주 4를 보라.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그것들 내부의 위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⁸⁰⁾

본 논자는 이러한 관찰을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관찰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개념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은 공간과 사회간의 역동적인 과정을 포착하게 해주는 가치로운 개념들이 개발될 수 있는 토양을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한다.

사회와 공간을 관련짓는 방식에 대해 개발된 개념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사회-공간 변증법(socio-spatial dialectics)'⁸¹⁾일 것이다. 본 논자는 기본적으로 이 용어를 혼돈적 개념(chaotic concept)이라고 생각하지만⁸²⁾, 임시적인 개념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공간 변증법이란 개념의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공리는 '공간은 항상 사회적으로 구축(constructed)되지만 동시에 사회는 항상 공간적으로 구성(constituted)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행위주체의 '실천'이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형태의 개념화는 부르디외의 사회학을 사회지리학화하는데 핵심적인 것이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사회-공간 변증법의 공리를 바탕으로 부르디외의 논의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2) 아비투스과 空間的 實踐(spatial practice): 生活樣式의 空間化(spatialization)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비투스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도출되고 하위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집단적인 인지적·평가적 도식이다. 그리고 이 일상적 경험이 포스트모던적 경험이라면 이 때 그 집단은 신중관계급이 된

80) Bourdieu, 1979, *op. cit.*, p.208.

81) E. W. Soja, 1981, "Socio-spatial dialectic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0, No2, pp.207-225.

82) 이 이유는 이상일, 1990, 앞의 논문, p.15를 보라.

다. 신중관계급과 포스트모던 문화간의 무의식적 공모에서 공간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이것은 Knox가 간명하게 표현한 것과 같이 “도시 경관이 신중관계급의 생활세계와 아비투스를 구축하고 재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며⁸³⁾, Shields의 용어를 빌자면 ‘사회적 공간화(social spatialization)’를 추적하는 것이며⁸⁴⁾, 보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취향의 대상으로서의 공간’과 ‘취향의 형성조건으로서의 공간’을 논증하는 문제이다. 신중관계급의 문화는 물질적 쾌락주의와 양식성(stylishness)에 대한 주목으로 구성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소비의 역할과, 그들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는 준거틀로서의 쇼핑의 역할이 건조환경의 생산과 관련을 맺는 방식은 이러한 관점을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포스트모던적 공간은 일상생활의 미학화의 중요한 기제임과 동시에 그것의 결과이다. 특정한 공간적 형태는 특정한 아비투스의 결과임과 동시에 전제이다.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쇼핑몰의 구조와 외양이 보여주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특성은⁸⁵⁾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상품 뿐만 아니라 소비의 공간 그 자체를 신중관계급이 소비하게 한다. 결국 모든 물질적 소비를 통한 양식적 실천은 공간적 실천이 되며 이것은 인간과 공간이 아비투스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중관계급의 문화적 실천이 공간과 관련되는 것은 단지 소비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하게 그것은 다양한 건축물의 구조와 외관, 주거 공간, 그리고 직업 환경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장소들에 대한 공간적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적 실천은 메트로폴리탄내 인구이동과 주거지 분화의 새로운 양상을 결과한다. 도심재활성화(gentrification), lofts living, 역사보존지역의 전

83) P. L. Knox, 1993, “Capital, material culture and socio-spatial differentiation,” in P. L. Knox, ed.,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26.

84) Shields, *op. cit.*, p.31.

85) 주로 지역적 쇼핑센터와 mall이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데, MetroCentre, Edmonton Mall, Le Toison d'Or, London Docklands 등이다. R. Shields, 1992, “Space for the subject of consumption,” in R. Shields, ed., *Lifestyle Shopping: The Subject of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p.2.

유⁸⁶⁾, 사적으로 계획·조성된 커뮤니티, 신 교외거주지 등은 신중관계급에 의한 공간적 실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⁸⁷⁾ 경관을 경제적 문화적 권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물리적 표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⁸⁸⁾, 새로운 도시 공간의 창출은 바로 도시 공간의 문화적 전유를 위한 투쟁에서 신중관계급이 헤게모니의 장악을 위한 진지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도시 경관의 계보학(geneology)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문화적 주체에 의한 문화적 전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도시경관의 역사는 바로 문화권력들의 역사인 것이다.

사회와 공간은 정체성(identity)를 매개로 가장 용이하게 만난다고 봤을 때⁸⁹⁾, 자아 혹은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 또한 필수적이다. Sibley가 지적하듯이 “자아의 분석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려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⁹⁰⁾ 개인적 혹은 집단적 정체성은 사회적 삶의 ‘시·공간적 일상화(routinization)’⁹¹⁾에 의해 생성·유지·변형된다고 했을 때, 자아 정체성은 공간-맥락적으로 구성된다

86) 보스톤의 Faneuil Hall과 Fan Pier, 볼티모어의 Inner Harbor, 뉴욕시의 South Street Seaport, 런던의 Covent Garden, 글레스고우의 Prince's Street가 예로 등장하는 장소들이다.

87) P. L. Knox, 1991,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 and the transformation of metropolitan Washington, D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81, No.2, pp.16-22.

88) S. Zukin, 1992, “Postmodern urban landscapes: mapping culture and power,” in Lash and Friedman, ed., *op. cit.*, p.224.

89) 이러한 사고는 Ley의 글에도 나타나 있다. Ley, *op. cit.*, p.52.

90) D. Sibley, 1991, “The boundaries of the self,” in C. Philo, ed., *New Words, New Worl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Aberystwyth: Cambrian Printers, p.33.

91) 일상화(routinization)라는 개념은 Giddens가 구조화이론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사회의 구성(constitution of society)을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체계적 통합(system integra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때 ‘사회적 통합’은 시·공간적으로 공존(co-presence)하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체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삶의 반복성을 지적하는 개념이다. A. Giddens,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London: Polity Press, Chp.2, pp.41-109; A. Giddens,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1 Power, Property and the State*, London: Macmillan; 최병두 옮김, 1991, 「사적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 pp.49-74, pp.191-198. 이 개념은 또한 시간

고 보아야 한다. 즉 “자아는 신체, 마음, 일상경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황지워진다.”⁹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티는 개인의 시·공간 경험을 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자아정체성이 구성되는 토대 자체를 변질시킨다. 자아정체성은 더 이상 전통적인 계급, 성, 인종, 세대 위에 토대하고 있지 않으며⁹³⁾ 소비와 소비의 공간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공간은 ‘취향의 대상으로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그러나 모든 일상생활의 중심에는 住居가 위치하며, 居住地는 모든 문화적 실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적 실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Knox가 개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lifestyle community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생활양식이 거주지 분리(segregation)의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아비투스(abitus)는 특정한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와 집단적인 거주를 통해 ‘排除의 地理(geographies of exclusion)’⁹⁵⁾를 확립하려는 공간적 실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경제적지위·가족적지위·인종적지위의 3차원으로 구성되는 거주 생태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주거단지의 개발과 소비라고 하는 도시개발의 논

지리학과 구조화이론이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 되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Gregory는 시·공간적 일상화의 개념을 ‘空間의 消費’라는 개념으로 지리학적으로 재번역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논문이 있지만 다음의 글이 가장 명쾌하다. D. Gregory, 1989, “Presences and absences: time-space relations and structuration theory,” in D. Held and J. B. Thompson, eds., *Social Theory of Modern Societies: Anthony Giddens and His Cr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85-214.

92) P. Rodaway, 1991, “Self, geography, postmodernism,” in Philo, ed., *op. cit.*, p.198.

93) *Ibid.*, p.201.

94) P. L. Knox, 1993, “The postmodern urban matrix,” in Knox, ed., *op. cit.*, pp.207-236; 여기에서 예로 등장하고 있는 40개의 생활양식의 종류와 그것의 공간적 분포는 Clarita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95) D. Sibley, 1995, *Geograph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London: Routledge.

리가 문화정치라는 새로운 차원의 도입으로 인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고정성이라고 하는 다른 문화상품과 구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거를 통한 구별이익의 획득은 신중단계급이 행하는 상징투쟁 중 가장 궁극적인 부분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삶이 주거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활동의 시·공간적 구축에 의해 생성·유지·변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향의 발생조건으로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정교화하는데 주거지의 전유라는 공간적 실천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생활양식이 궁극적으로 공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종류의 생활양식은 공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실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생활양식이 상징투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생활양식의 공간화(spatialization)’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고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요구한다.⁹⁶⁾ 포스트모더니티의 도래는 사회적 관계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논리 자체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이것은 새로운 아비투스를 생성(재현의 공간)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적 아비투스(공간의 재현)와 상징투쟁의 새로운 전선을 창출한다. 이러한 상징투쟁은 거의 동시적으로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추동하며(공간의 생산) 이렇게 창출된 공간의 전유를 통한 공간의 소비(공간적 실천)는 이러한 문화적 실천의 특정한 침전물(공간의 재현)을 낳는다.

IV. 結論: 文化와 消費의 社會地理學을 指向하며

서론에서 본 논자는 사회지리학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사회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식론적 공백’이 아니라 ‘존재론적 공백’인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문적 대상인 주제들을 묶어 줄 수 있는 합의된 핵심적 학문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본 논자는 사회지리학은 “사회적 삶의 공간성(spatiality of

96) H. Lefebvre,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p.59.

social life)⁹⁷⁾을 포착하려는 학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특정한 시점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삶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구성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사회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지리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최초의 집단적 시도가 사회지리학의 ‘문화적 전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⁹⁸⁾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회과학 전반에서의 문화적 전회라는 흐름에 동참했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핵심적인 학문적 주제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것은 Jackson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회학자들이 소비문화의 본질, 집합적 소비의 정치학, 그리고 소비부문의 분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소비의 지리(geographies of consumption)’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⁹⁹⁾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소비사회의 공간성을 포착하는 것, 즉 소비와 관련된 문화적 실천과 공간적 형태간의 변증법을 해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회지리학의 과제인 것이다.¹⁰⁰⁾

문화와 소비의 사회지리학을 지향하는데 있어 부르디외의 문화계급론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특히 아비투스 개념은 사회적 관계, 공간적 형태, 인간의 실

97) 이것은 soja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개념이다. E. W. Soja, 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s a transformative retheorisation,” D. Gregory and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pp.90-127.

98) 문제해결을 위한 최초의 집단적 움직임은 영국지리학회와 ‘사회 및 문화지리학 연구 모임(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study Group)’의 학술대회였다. 사회지리학의 문화적 전회는 이 연구모임의 원 명칭이 ‘사회지리학 연구 모임’이었다는 것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사항은 학술대회의 Proceedings가 출판된 것인 「새로운 말, 새로운 세상: 사회 및 문화지리학의 재개념화(New Words, New Worl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의 Philo의 글을 참고하라.

C. Philo, 1991, “Introduction, acknowledgements and brief thoughts on older words and older worlds,” in C. Philo, ed., *op. cit.*, pp.1-13.

99) Jackson, *op. cit.*, p.222.

100) 이러한 시도에서 Clark와 Jackson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D. B. Clark, 1991, “Towards a geography of the consumer society,” in C. Philo, ed., *op. cit.*, pp.88-97; D. B. Clark and M. Purvis, 1994, “Dialectics, difference, and the geographies of consumption,” *Environment & Planning A*, Vol.26, pp.1091-1109; Jackson, *op. cit.*

천을 함께 고려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학문적 권역을 의심받고 있는 학문이 그 의심을 지우려는 노력을 바로 그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데서부터(de-limiting)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¹⁰¹⁾ 부르디외는 사회지리학에 있어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신선한 大氣로 나가게 해주는 하나의 손짓인 것이다.

101)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Study Group Committee, 1991, "De-limiting human geography: new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C. Philo, ed., *op. cit.*, pp.14-27.

<참고문헌>

- 강내희, 1995, “소비공간과 그 구성의 문화과정,” 『공간과 사회』, 통권 제5호, pp.19-30
- 권정화, 1994, “탈현대의(Postmodern) 과장과 세기말의 인문 지리학 담론: 연구 서설,” 『응용지리』, 제17호, pp.35-63
- 권정화, 1995, “영상소비문화시대의 일상경험과 도시경관의 상징성,” 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세계화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대운, pp.201-221
- 권정화, 1995, “미로 속의 사회-공간 이론과 대중문화 연구의 유혹,” 『공간과 사회』, 통권 제5호, pp.95-124
- 윤정로, 1991, “계급구조와 재생산이론: 부르디외의 이론,”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pp.40-52
- 이기현, 1995, “부르디외: 비판사회과학의 성찰성,”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탈현대사회사상의 궤적』, 새길, pp.383-414
- 이상일, 1990, “실재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제24집, pp.1-24
- 이상일,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의 해체인가 재구성인가?,” 『지리교육논집』, 제30집, pp.51-79
- 이상현, 1995, “자본주의 소비공간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세계화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대운, pp.223-260
- 최병두 와 구동희, 1995, “포스트모더니즘과 도시문화경관으로서의 건축양식,” 『공간과 사회』, 통권 제5호, pp.125-152

한상진, 1984,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 그 차이점에 관하여,” 한상진 편,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문학과 지성사, pp.141-164

황태현, 1992,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

Abercrombie, N. and J. Urry, 1983, *Capital, Labour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김진영·김원동 옮김, 1986, 「현대자본주의와 중간계급: 자본·노동과 계급의 문제」, 한울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Éditions Denoël; 이상률 옮김,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의 구조」, 문예출판사

Bauman, Z., 1988, “Is there a postmodern sociology,”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No.2-3, pp.217-238

Bourdieu, P., 1972, *Esquisse d'une théorie de la pratique, précédé de trois études d'ethnologie kabyle*, Librairie Droz; Trans. by R. Nic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urdieu, P. 1977, *Algérie 60: structures économiques et structures temporelles*,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최종철 옮김, 1995,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알제리의 모순」, 동문선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Les Editions de Minuit; 최종철 옮김, 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동문선

Bourdieu, P., 1984, *Questions de Sociologie*, Les Editions de Minuit; 문경자 옮김, 1994,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 솔

Bourdieu, P., 1987, “What makes a social clas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existence of groups,”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Vol.22, pp.1-17.

- Bourdieu P. (edited by J. B. Thompson and trans. by G. Raymond),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Polity Press; 정일준 옮김,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 Buttimer, A., 1969, "Social space i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Vol.59, pp.417-426
- Clark, D. B., 1991, "Towards a geography of the consumer society," in C. Philo, ed., *New Words, New Worl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Aberystwyth: Cambrian Printers, pp.88-97
- Clark, D. B. and M. Purvis, 1994, "Dialectics, difference, and the geographies of consumption," *Environment & Planning A*, Vol.26, pp.1091-1109
- Claval, P., 1986, "Social geography in France," in J. Eyles, ed. *Social Geograph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otowa: Barnes & Noble Books, pp.13-29
- Conner, S., 1989, *Postmodern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y of the Contemporary*, Oxford: Blackwell; 김성곤·정정호 옮김, 1993, 「포스트모던 문화: 현대이론서설」, 한신문화사
- Crompton, R.,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An Introduction to Current Debates*, Cambridge: Polity Press; 정태환·한상근 옮김, 1995, 「현대의 계급론」, 한울아카데미
- Descamps, C., 1986, *Les idées philosophiques contemporaines en France*, Paris: Bordas; 김화영 옮김, 1991, 「오늘의 프랑스 철학사상(1960-1985)」, 책세상
- Eyles, J. 1986, "Diffusion and convergence," in J. Eyles, ed. *Social Geograph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otowa: Barnes & Noble Books, pp.1-12
- Featherstone, M., 1988, "In Pursuit of the Postmodern: an introduc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No.2-3, pp.195-215

Featherstone, M., 1992, "Postmodernism and aestheticization of everyday life," in S. Lash and J. Friedman, eds., *Modernity and Identity*, Oxford: Blackwell, pp.265-290

Giddens, A.,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Hutchinson;
장정수 옮김, 1982, 「선진사회의 계층구조」, 종로서적

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1 Power, Property and the State*, London: Macmillan; 최병두 옮김, 1991, 「사적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London: Polity Press

Gregory, D., 1989, "Presences and absences: time-space relations and structuration theory," in D. Held and J. B. Thompson, eds., *Social Theory of Modern Societies: Anthony Giddens and His Cr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85-214

Gregory, D., 1994, *Geographical Imaginations*, Cambridge: Blackwell.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구동화·박영민 옮김,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Jackson, P. and S. Smith, 1984, *Exploring Social Geography*, London: Allen & Unwin

Jackson, P. 1993, "Towards a cultural politics of consumption," in J. Bird, et al., 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London: Routledge, pp.207-228.

- Jameson, F., 1983,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H. Foster, ed.,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Bay Press, pp.111-125; 임상훈
 옮김,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윤호병 외 옮김, 「반미학 : 포스트모던
 문화론」, 현대미학사, pp.176-197
- Jameson, F., 1984,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Vol.146, pp.53-92; 강내희 옮김, 1989, "포스트모더니즘 - 후기자본주의
 의 문화논리,"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터, pp.139-202
- Jones, E., 1975, "Introduction," in E. Jones, ed., *Readings in Social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12
- Knox, P. L., 1991,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 and
 the transformation of metropolitan Washington, D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81, No.2, pp.181-209
- Knox, P. L., 1993, "Capital, material culture and socio-spatial differentiation," in P. L.
 Knox, ed.,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p.1-34
- Knox, P. L., 1993, "The postmodern urban matrix," in P. L. Knox, ed.,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p.207-236
- Knox, P. L., 1995,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3rd Edition, Harlow:
 Longman
- Lash, S., 1990, *Sociology of 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김재필 옮김, 1993, 「포
 스트모더니즘의 사회학」, 한신문화사
- Lash S. and J. Urry, 1987, *The End of Organized Capitalism*,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Ley, D., 1978, "Social geography and social action," in D. Ley and M. Samuels, eds., *Humanistic Geography: Problems and Prospects*, Chicago: Maarou/Croom Helm

Moulaert, F. and E. A. Swyngedow, 1989, "A regulation approach to the geography of flexible production system,"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7., No.3, pp.327-345

Phal, R. E., 1965, "Trends in social geography," in R. J. Chorley and P. Haggett, eds., *Frontiers in Geographical Teaching*, London: Methuen, pp.81-100

Philo, C., 1991, "Introduction, acknowledgements and brief thoughts on older words and older worlds," in C. Philo, ed., *New Words, New Worl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Aberystwyth: Cambrian Printers, pp.1-13

Rodaway, P., 1991, "Self, geography, postmodernism," in C. Philo, ed., *New Words, New Worl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Aberystwyth: Cambrian Printers, pp.196-203

Savage, M., J. Barlow, P. Dickens, and T. Fielding, 1992, *Property, Bureaucracy and Culture: Middle-Class Formation in Contemporary Britain*, London: Routledge

Sayer, A., 1985, "Industry and space: a sympathetic critique of radical research,"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3, No.1, pp.3-30

Shields, R., 1991, *Places on the Margin: Alternative Geographies of Modernity*, London: Routledge

Shields, R., 1992, "Space for the subject of consumption," in R. Shields, ed., *Lifestyle Shopping: The Subject of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pp.1-20

- Shoenberger, E., 1988, "From Fordism to flexible accumulation: technology, competitiv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location,"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6., No.3, pp.245-262
- Sibley, D., 1991, "The boundaries of the self," in C. Philo, ed., *New Words, New Worl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Aberystwyth: Cambrian Printers, pp.33-35
- Sibley, D., 1995, *Geograph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London: Routledge
-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Study Group Committee, 1991, "De-limiting human geography: new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C. Philo, ed., *New Words, New Worl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Aberystwyth: Cambrian Printers, pp.14-27
- Soja, E. W., 1981, "Socio-spatial dialectic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0, No.2, pp.207-225
- Soja, E. W., 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s a transformative retheorisation," D. Gregory and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pp.90-127
- Storey, I.,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Simon & Schuster; 박 모 옮김, 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 Thrift, N.,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1, No.1, pp.23-57
- Thrift N. and P. Williams, 1987, "The geography of class formation," in N. Thrift and P. Williams, eds., *Class and Space: The Making of Urban Societ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pp.1-22

Wacquant, L. J. D., 1992, "Preface," in P. Bourdieu, *Réponses*, Éditions du Seuil; 문경자
옴김, 1994, "총체적 사회과학을 위하여,"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 술,
pp.301-334

Ward, A., 1990, "Production, consumption and social change: reservations regarding
Peter Saunder's sociology of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4, pp.228-248

Werlen, B., 1993, *Society, Action and Space: An Alternative Human Geography*,
London: Routledge

Zukin, S. 1992, "Postmodern urban landscapes: mapping culture and power," in S. Lash
and J. Friedman, eds., *Modernity and Identity*, Oxford: Blackwell, pp.221-247

<ABSTRACT>

Pierre Bourdieu's Social Geography : Towards Social Geography of Culture and Consumption

Sang-il Lee*

This paper's purpose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Bourdieu's cultural class theory for social geography. Bourdieu's theory was reviewed in terms of such concepts as social space, field, habitus, symbolic struggle and lifestyle. By using those concepts, he wanted to edify a one-dimensional and economy-deterministic class theory, especially seen in Marxist tradition. 'Habitus' plays a central role in his theorization. It is defined as "a system of lasting, transposable disposition which, integrating past experiences, functions at every moment as a matrix of perceptions, appreciations, and actions and makes possible the achievement of infinitively diversified tasks." He seems to overcome the chronic dichotomy between structure and agency through 'habitus'. Habitus is a structure which is structured by social relation and, at the same time, a structure which is structuring the classified and classifying practices.

It is understood that the economic shift from Fordism to post-Fordism or late capitalism or flexible accumulation or disorganized capitalism has catered postmodernism, only to make postmodernity *Zeitgeist* of the present. Postmodernity is understood to incline to draw 'cultural turn' in academic sphere, which means that the focal object of academic works has moved from economy to culture and involves epistemological reflections that the pivotal

* Assista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ifferentiation of social life is being made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tics. Also the saturation of artistic postmodern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effacement of the boundary between art and everyday life, the real and its image, and high culture and popular culture, makes everyday life aestheticized through the intensification of sign and image production in the media. And consuming artifacts is not so much exchanging use-value as appropriating sign-value, for the purpose of not need but distinction. It is said that there is a certain group or class fraction, that is new middle class, which pursues the stylization of life and is eager to appropriate the postmodern facts, culture, and places.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postmodernism and the habitus of new middle class.

I think that the conceptual linkage of Bourdieu's habitus and postmodernity theme can help social geography to elucidate its subject matters and to examine the 'socio-spatial dialectics' which means the theorem that space always is constructed socially but, at the same time, society always is constituted spatially. This corresponds to trying to grasp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Concepts like spatial practice and spatialization of lifestyle may contribute to depict the spatiality of postmodernity and, more specifically to observe the process through which postmodern urban landscapes are 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by the habitus of new middle class, and is constituting and reconstituting it.

In this respect, I propose that social geography should de-limit itself by following the line of cultural turn and find some clues for refreshing itself in territory of culture and consumption. Bourdieu's conception is a good fort needing to be pre-captured by social geographers searching for new terrains.